

##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

최 주 한

(김포대학교 교양과)

### 1. 시작하며

한국 근대사상사에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만큼 거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논의도 드물다. 무엇보다도 논설 『민족개조론』이 발표된 1922년 5월은 이광수가 상하이에서 무사 귀국한 이래 비등했던 독립운동의 배반자라는 여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데다,<sup>1)</sup> 3·1운동 이후 문화정치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052).

이 논문은 일본학술진흥회로부터 기반연구 (B) 2013~2015년도(과제번호 25284072)를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이광수가 총독부의 회유책에 따라 귀순한 것이라는 의혹은 귀국 당시 이를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전일의 情意를 更續하여 그리함이든지, 혹은 어떤 곳의 부탁하는 무거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리함이든지, **허영속이는 모체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돌연히 상해로 건너가서 이광수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갔던 바(하략)**” 『조선일보』, 1921.4.3.

주제어: 이광수, 민족개조, 문화운동, 민족심리학, 남조선사상, 윤리적 민족 공동체  
Lee kwang-su, nation reformation, cultural movement, ethnic psychology, Namjoeson ideology, ethical-national community

를 내건 총독부가 민족주의자에 대한 회유책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던 시점이었다.<sup>2)</sup> 게다가 이 무렵은 3·1운동에서 정치의식을 획득한 대중을 의식화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며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sup>3)</sup> 그러니까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쪽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sup>4)</sup>

1920년대 초반의 이러한 정치문화적 지형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후대의 연구들에서도 논의의 기본적인 준거틀이 되어 왔다. “정치적 배신의 도덕적 위장”(송욱: 313)이자 “일본국가라는 ‘단체’에의 순종과 ‘원수’ 즉 그 통치자에의 복종”(임종국: 261)으로 간주한 즉자적인 비난에서부터, 독립을 포기한 채 문화정치를 내세운 총독부와 타협한 민족개량주의의 산물로 해석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한 논의들,<sup>5)</sup> 더 나아가 온건하고 개량적인 문화적 기획이기는커녕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불안의식을 바탕으로 지도자에 의한 대중의 통제와 지배라는 ‘파시즘의 대중정치학’(김현주: 104)에 입각한 래디컬한 정치적 기획으로 밀고나간 논의

2)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자에 대한 총독부의 회유 정책에 관해서는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379-399쪽 참조.

3) 3·1운동 이래 사회주의자들의 대중운동 노선의 변화에 대해서는 임경석(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제14장 ‘사회주의운동의 지각변동’, 546-563쪽 참조.

4) 민족주의 진영 내부의 문제제기로는 최원순, 『이춘원에게 묻하노라』(『동아일보』, 1922.6)가 대표적이고, 사회주의 진영의 논박으로는 신상우,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읽고 그 일단을 논함』(『신생활』, 1922.6), 신일용,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평함』(『신생활』, 1922.7), 김제관, 『사회문제와 중심사상』(『신생활』, 1922.7) 등이 있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민족성 개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물론적인 사회개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5) 강동진(1980), 앞의 책, 379-399쪽.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294-298쪽. M.로빈슨(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나남, 107-124쪽.

에 이르기까지, 이들 논의가 저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민족과 반민족, 혹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논의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1920년대 초반의 정치문화적 지형에 시야를 국한하여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애초에 민족개조를 구상한 이광수의 의도는 물론, 그것이 당대 맥락 속에서 지녔던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적 함의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일제에의 투항이라거나 문화정치를 내세운 총독부와의 타협, 혹은 사회주의에 대한 파시즘적 방어로서 간주해버리는 것은 애초에 그것을 구상한 이광수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이광수 자신 『민족개조론』(1921.11)의 ‘변언’(辯言)에서 “이 글의 내용인 민족개조의 사상과 계획은 재외동포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내 것과 일치하여** 마침내 나의 일생의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광수10: 116)이라고 밝힌 바 있거니와, 그의 민족개조의 구상은 2차 유학시절 와세다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사정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학회 시절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상하이 임시정부시절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이자 『독립신문』의 주필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및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과 만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광수의 조선학회 시절의 활동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그것이 상하이 임시정부시절의 활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족개조론』은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내건 총독부 측의 민족주의자에 대한 회유책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점에서 집필·발

6) 이러한 정치문화적 지형에 국한된 논의 경향은 최근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택호(2000), 『개화기의 국가주의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의 관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13. 김형국(2001), 『1920년대 초 민족개조론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표되어 타협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만큼, 『민족개조론』의 집필 경위 및 글쓰기 전략에 대해 검토하여 이 타협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1920년대 초반은 총독부가 3·1운동 이래 각성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순치하기 위해 조선인 민족성 담론의 선편을 쥐고자 발 빠르게 움직인 시기이기도 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그간 민족과 반민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문화적 논의를 탓에 간과되어 왔지만, 『민족개조론』은 총독부의 문화정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산물일 뿐 아니라, 조선인 민족성론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전략적인 텍스트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국내외의 사상계를 휩쓸었던 세계개조론의 흐름에 호응하여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1920년대 초반은 국내에서도 정의와 인도,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세계개조론의 기운에 힘입어 ‘인간성의 옹호’를 내건 인본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민족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였다.<sup>7)</sup> 이러한 인본주의적 보편 지향성은 이 무렵 동학의 ‘후천개벽’ 이념에 입각한 신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내걸고 당대 문화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계 잡지 『개벽』(1920.6)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었는데, 『민족개조론』 이후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이 세계개조론과 호응하는 동학 이념을 재발견하고 이로부터 민족개조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개벽』의 내적 동력에 힘입은 바 크다. 장편 『허생전』(『동아일보』, 1923.12-1924.3)은 이러한 후천개벽의 관점에서 조선 민족의 오랜 민중 신앙의 하나였던 남조선사상을 재해석해낸 작품으로, 당대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의 흐름에 부응하는 윤리적 민족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7) 박찬승(1992), 앞의 책, 177-179쪽. 최주한(2004),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 - 1920년대 초반 『개벽』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4, 310-313쪽.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은 처음 구상되어 완결된 형태를 갖추기까지 제법 오랜 기간 다양한 조건을 거치면서 구축되어간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2차 유학시절 조선학회 활동에서 시작된 첫 구상은 상하이 임시 정부 시절의 활동 및 도산의 흥사단 이념과 만나 구체화되고, 귀국 후 국내 천도교 계열 문화운동의 내적 동력 속에서 재정립되는 과정을 거쳐 장편 『허생전』(1924)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선명한 청사진으로서 제시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관한 연구는 1922년 5월 『개벽』에 발표된 논설 「민족개조론」에 국한되었을 뿐,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은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은 구상에서 완결된 형태를 갖추기까지 어떤 조건 위에 놓여 있었는가. 또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민족성 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망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글쓰기 전략을 구사했는가. 본고에서는 우선 이러한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나감으로써 민족성 문제에 대한 이광수의 오랜 천착이 갖는 의미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차 유학시절의 활동에서 귀국 후의 활동에 걸친 그의 민족개조의 기획이 조선인 민족성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맞서 독자적이고도 보편 지향적인 윤리적 민족 공동체상을 구축해 가는 도정과 맞닿아 있음을 또렷하게 그려 보이고자 한다.

## 2. 민족성 개조 구상의 전사(前史): 1915-1921

### 2.1. 조선학회 활동과 「신생활론」

1915년 11월 10일 일본 도쿄에서는 이광수, 신익희, 장덕수 등의 발기로 조선학회가 조직된다.<sup>8)</sup> 와세다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신학문의 빛

으로 조선사정을 연구”<sup>9)</sup>한다는 목적하에 조직된 이회는 1916년 1월 29일 일본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제1회 총회를 개최한 후 1918년 후반 중심인물들이 대거 상하이로 망명하기 직전까지 꾸준한 모임을 가졌다. 조선학회는 표면상의 목적은 한국에 관한 일반 학술의 연구였으나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로 간주했던 관헌의 예의 주시하에 비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회원들의 연구 보고회를 가졌고, 때로는 공개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sup>10)</sup> 이광수는 1916년 1월 29일 제1회 모임과 11월 3일의 모임에서 농촌문제와 조선 민족성에 관해 두 차례 연구 보고를 한 바 있다.<sup>11)</sup>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선학회는 1910년 조선 병합을 기념하여 재조 일본인들이 설립한 조선연구회의 활동을 의식하고 만들어진 단체였을

- 
- 8)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 이광수, 신익희, 장덕수 등의 발기와 활약으로 조선학회가 조직되다. 조선학회의 표면상 목적은 한국에 관한 일반 학술의 연구였으나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회원 자격은 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되었다.” 警務局(1916), 『朝鮮人概況』 第3編 第1章 ‘内地在住 朝鮮人の 情況’,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su\\_003\\_1915j\\_11\\_10\\_0230](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su_003_1915j_11_10_0230) 참조.
- 9) 『학지광』 10호, 1916.9, 소식란, 58쪽.
- 10) 당시 『학지광』의 소식란에는 조선학회의 활동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제1회와 제2회 모임에서는 이광수와 노익근이 농촌문제에 관하여, 제3회 모임에서는 장덕수가 식민에 관하여 연구 발표했고(『학지광』 10호, 1916.9), 11월 3일 모임에서는 이광수의 우리 민족성에 관한 연구 보고가 있었다(『학지광』 11호, 1917.1). 이듬해 1917년 2월 9일에 열린 공개 강연회에는 장덕수, 노익근, 현상운이 참석했고(『학지광』 12호, 1917.4), 6월 23일에는 신익희가 조선 古來의 외교에 대하여 강연했다(『학지광』 13호, 1917.7). 10월 20일에는 전영택의 조선 기독교에 대한 강연이(『학지광』 14호, 1917.12), 12월 12일에는 현상운의 조선인의 시각으로 본 구주대전이 라는 보고 강연이 있었다(『학지광』 15호, 1918.3). 1918년 11월 16일의 모임에서 노익근이 민족자각을 역설한 강연이 현재까지 확인되는 마지막 보고 강연([http://db.history.go.kr/search.jsp?w=조선학회 노익근](http://db.history.go.kr/search.jsp?w=조선학회%20노익근))이다.
- 11) 최근 『학지광』 8호(1916년 3월 발행, 압수)가 발굴되어 조선학회 1회 모임에서 이광수가 발표한 글이 『학지광』 8호에 게재된 이광수의 논설 「용동 - 농촌문제에 관한 실례」라는 사실이 하타노 세츠코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하타노 세츠코(2011), 「이광수의 제2차 유학시절 - 『무정』 다시 읽기」(상),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 최주한 옮김, 소명출판, 83-84쪽.

가능성이 높다. 동화사업과 재조 일본인 청년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조선연구회는 데라우치 총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조선의 고서를 번역 간행하는 한편 역사, 정치, 문화, 실업 분야의 조사 연구 내용을 꾸준히 단행본으로 간행했다.<sup>12)</sup> 1911년부터 1918년까지 20여 종의 고전을 『조선총서』로 발간한 최남선의 조선광문회의 활동이 조선고서간행회 및 조선연구회와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sup>13)</sup> 조선학회의 활동 또한 식민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조선연구회를 의식하여 조선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사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이광수가 조선학회에서 두 번째로 연구 보고한 「우리 민족성 연구」는 특기할 만하다. 이 연구 보고는 이광수가 이 무렵 이미 민족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한편,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당시 조선연구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sup>14)</sup>의 조선인 민족성론에 대한 반향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5년부터 조선연구회의 평의원으로서는 일본의 조선인 민족성 담론을 주도했던 다카하시의 조선인 민족성 논의는 1914년에 간행된 『조선의 속담 및 이야기』(朝鮮の俚言附物語)에서 시작된다. 다카하시는 이 책의 「자서」(自序)에서 조선인 민족성을 ‘사상의 고착성’, ‘사상의 비독창성’, ‘무사태평’, ‘문약」(文弱), ‘당파심’, ‘형식주의」로 정의하고 있다.<sup>15)</sup> 이후

12) 조선연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최혜주(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473-478쪽 참조.

13) 오영섭(2001), 「조선광문회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133쪽.

14) 다카하시 도루(1877~1967)는 1904년 말 대한제국 정부의 초청으로 내한하여 관립 중학교 교사가 되고, 총독부 촉탁, 대구고등보통학교장, 총독부시학관을 지냈다. 1926년 경성제대 교수가 되었고, 정년 다음해인 1939년에는 혜화전문학교장을 지냈다. 최혜주(2005), 앞의 논문, 485쪽 참조.

15) 金廣植(2011), 「高橋亨の『朝鮮の物語集』における朝鮮人論に関する研究」, 東京學

1917년 6월 『일본사회학원연보』에 발표한 논문 「조선인」에서는 여기에 ‘심미관념의 결핍’, ‘공사혼동’, ‘관용과 위엄’, ‘순종’의 네 항목을 덧붙여 조선인의 민족성을 열 가지 항목으로 범주화하게 되는데, 1920년 12월 총독부에서 간행한 단행본 『조선인』은 이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sup>16)</sup> 논문 「조선인」이 발표된 것은 1917년 6월의 일이지만, 이 논문의 초고는 1915년 5월에 완성되어 「조선인 특성의 연구」(朝鮮人特性之研究)라는 제목의 인쇄본 형태로 유통되었다.<sup>17)</sup> 그러니까 1916년 11월 이광수가 조선학회에서 「우리 민족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다카하시의 조선인 민족성 담론이 유포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아쉽게도, 이광수가 조선학회에서 발표한 「우리 민족성 연구」가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로부터 2년 뒤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논문 「신생활론」(1918.9.6-10.19)은 “유교가 조선 민족성에게及한 영향”(이광수10: 344)에 대해 열 가지 항목으로 논의하고 있는 논문의 전반부가 그대로 다카하시의 논문 체제를 환기하고 있어 조심스럽게나마 관련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광수는 유교가 조선 민족성에 미친 영향을 ‘숭고(崇古)와 존중화(尊中華)’, ‘경제를 경히 여김’, ‘형식주의’, ‘효의 사상’, ‘부부관계’, ‘소극주의’, ‘송문주의’(尙文主義), ‘계급사상’, ‘운수론’, ‘비과학적’ ‘점잔’의 열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sup>18)</sup> 이 가운데 ‘숭고와 존중화’, ‘형식주의’, ‘상문주의’, ‘계급사상’은 다카하시의 ‘사상의 고착

---

藝大學大學院綜合學校教育硏究科, 『學校教育學硏究論集』 24, 19쪽.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 민족성론의 계보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논문이다. 논문 자료를 보내주신 하타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6)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1920)과 조선연구에 관해서는 구인모(2010), 「조선연구의 발산과 수렴의 교차점으로서 민족성 연구」, 『한국문화연구』 38을 참조할 것.

17) 金廣植(2011), 위의 글, 18쪽.

18) 이광수(1918), 「신생활론」, 『이광수전집』 10, 330-344쪽.

성', '형식주의', '문약', '당파성'의 범주와 그대로 겹친다. 그러나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을 조선인의 가장 근본적 특성이라고 간주했던 다카하시의 논의가 “조선인에게는 독창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선정(善政)과 우수한 일본 민족의 감화로 씻어내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는 동시에 민족적으로 향상”(高橋亨: 86)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급적 전제였다면, 이광수의 조선인 민족성 비판은 “구생활방식을 답습함은 오인(吾人)의 멸망을 의미”하며 따라서 “생활 혁명은 실로 오인(吾人)의 사활(死活)이 분기(分岐)하는 대문제”(이광수10: 325)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일면 뼈아프게 수궁하지 않을 수 없되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전제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더욱이 『신생활론』에서 이광수가 제시한 유교 비판 가운데 ‘효의 사상’, ‘부부관계’, ‘운수론’ 등의 항목은 『조선 가정의 개혁』(1916.12)에서 『조혼의 악습』(1916.12), 『혼인에 대한 관견』(1917.4), 『혼인론』(1917. 11), 『자녀중심론』(1918.6), 『숙명론적 인생관에서 자력론적 인생관에』(1918.8)에 이르는 독자적인 현실 인식에 기반한 각론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하나같이 현대 문명에 부응하는 민족적 자질의 고취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민족성 비판은 다카하시의 조선인 민족성론에 수궁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조선 민족의 정신적 재생을 위한 비판적 계기로서 재구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 2.2. 상하이 임시정부시절의 활동과 「선전 개조」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를 집필하고 동 선언서를 번역하여 해외 언론에 배포하는 책임을 맡고 상하이로 망명한 것은 1919년 2월 5일의 일이다.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동경의 2·8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전해오는 3·1운동에 관한 소식을 해외 언론에 알리느라 분주했던 그는,

뒤이어 신한청년당 회원들과 더불어 국내와 해외 각지의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지난한 중재에 나선 끝에 동년 4월 10일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안창호를 내무총장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족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임시정부 발족 후 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나, 곧 위원직을 사퇴하고 임시사료편찬회 주임 및 독립신문사 사장 겸 주필로서의 활동에 매진한다.<sup>19)</sup>

이광수가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으로 활동한 것은 1919년 6월 17일 임시사료편찬회가 발족하여 『한일관계사료집』을 출판하고 동년 9월 8일 해산할 때까지의 일이다.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외교활동을 떠난 임시정부는 회의에서 국제연맹 결성이 의결되자 국제연맹에 제출할 자료로 한일관계사를 편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임시사료편찬회를 발족하여 이광수에게 편집주임의 임무를 맡긴다.<sup>20)</sup> 이에 이광수는 7월 2일 편찬 업무를 시작하여 8월 20일 원고 집필을 마감하기까지 약 50여 일의 짧은 편찬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의 원고를 집필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사료편찬회의 위원들이 부담한 초고를 종합·정리하는 일에 몰두했다.<sup>21)</sup> 『한일관계사료집』은 고

19) 이광수(1948),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pp. 253-257. 1919년 1월 조직된 신한청년당은 국내외 민족 지도자들과 회견하고 독립운동 방략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신한청년당의 대표를 각 지역으로 파견한다. 이들의 활약으로 해외 각 지역의 민족 지도자들이 상하이로 집결한 것은 3월 하순경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조직안 토의에 들어간 것은 4월 초순의 일이다. 신한청년당의 활약과 임시정부수립의 경위에 대해서는 김원모(2009),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출판부, 88-111쪽 참조.

20) 임시사료편찬회는 6월 17일 발족 당시에는 ‘사료조사편집부’라는 이름 출발하였으나, 7월 2일 본격적으로 편찬업무를 시작하면서 ‘임시사료편찬회’로 개칭된다. 김원모, 앞의 책, 112쪽의 각주 62) 참조.

21) 김원모는 사료집의 제4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광수 단독집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김원모(2009), 앞의 책, 120-122쪽),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광수는 『서언』에서 “본서 編輯期는 겨우 50일이라. 그러므로 각인의 담당한 초고를 一人의 手로 통일·정리하기는 姑捨하고 각기 자기의 分도 교정할 여가가 無하여 여차

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한일관계사, 한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 합병 후 식민통치의 실상, 3·1운동의 원인과 경과 및 결과를 망라한 독립운동사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광수의 민족성 개조의 구상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2편이다.

제2편은 1장 ‘민족 급(及) 국민성의 차이’, 2장 ‘한족의 일본족에 대한 경멸’, 3장 ‘한족의 일본족에 대한 원한’ 4장 ‘한족의 일본족에 대한 불신임’, 5장 ‘한족의 민족력’의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4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줄 정도로 뛰어난 문화능력을 지녔던 우월성을 부각시켜 한족이 역사적으로 독립의 잠재적 실력을 갖춘 민족임을 규명하는 한편, 삼국시대 이래 수시로 한족을 침략해온 것은 물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병자수호조약의 맹약마저 어기고 조선을 병탄하기에 이른 일본의 침략적 야심 및 병합 이래 일본의 포화한 식민통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독립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족은 창조력이 핏(乏)한 민족이 아니다”(임시사료편찬회: 71)라는 선언적인 주장으로 시작하여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 한족의 문화능력을 고증하고 있는 5장의 2절은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을 조선인의 근본적 특성이라고 간주하여 동화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 민족성론에 대한 강한 반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짧은 기간이었으나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으로서의 활동은 이광수에게 조선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에 눈뜨게 해주었으므로 조선 민족성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균형추를 마련해 주었다. 이광수는 『한일관

---

히 착잡한 體裁를 成하다”(『한일관계사료집』(1919), 국사편찬위원회, 2005, 3쪽)고 적고 있거니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한일관계 일반을 서술하고 있는 제1편만 해도 제4장 ‘갑신혁명당의 난’과 제5장 ‘朝日條約類聚’ 항목의 경우 거의 懸吐體에 가까운 문장을 사용한 1, 2, 3장의 편년체 서술과는 달리 국한문혼용체 문장을 사용한 사건 중심의 서사체로 구성과 문체를 달리하고 있어 집필자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사료집』의 편찬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독립신문사 사장이자 주필로서 『독립신문』의 창간 준비에도 분주했는데, 1919년 8월 21일에 게재된 창간사는 이 무렵 그가 도달한 민족성 개조 방침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국민은 과거에 영예로운 역사를 가졌고, 이를 통하여 전하는 고결하고 용장한 국민성을 가졌으나, **하나는 유교의 횡포에 하나는 일본족의 횡포에 많이 소멸하고 엄폐된지라**. 유형한 국토는 차라리 잃을지언정 선조의 정신이야 어찌 차마 잃을 것인가. 건전한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 불행한 우리는 이 영예로운 역사를 잊고 고결 용장한 국민성을 활용하지 못함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에는 아직도 그 고귀한 맹아가 존재하니 一風一雨 가 족히 이를 소생케 할지라. **국사와 국민성을 고취하고 아울러 신사상을 섭취함으로써 개조 혹은 부활한 민족으로서 부활한 신국민을 만들려고 노력함이** 本報 사명의 다섯 번째이다(이광수<sup>a</sup>: 56).

한 마디로 말하자면, 유교의 영향 및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소멸된 ‘고결 용장한 국민성’을 소생케 하기 위해 국사와 국민성을 고취하는 한편, 신사상을 섭취함으로써 조선 민족을 ‘개조 혹은 부활한 민족’, ‘부활한 신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무렵 이광수가 내건 민족성 개조의 대략적인 방침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 및 독립신문사 주필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대략적인 방향성을 얻게 된 민족성 개조의 방침은 이해 가을 도산 안창호의 흥사단과 만나면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을 갖게 된다. 이광수가 흥사단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임시정부의 조직 개편<sup>22)</sup>에 따라 내부

22) 3·1운동 이래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양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정부로서 기능하는 데 혼선을 빚자,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도산은 양자 사이에 임시정부 통합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 임시정부

총장에서 노동총판으로 물러났은 도산이 흥사단 원동지부 조직에 착수한 이해 가을의 일이다.<sup>23)</sup> 그러나 이보다 조금 앞서 ‘장백산인’(長白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독립신문』 창간호에서부터 14회에 걸쳐 연재한 『선전 개조』(1919.8.21-10.28)는 그가 이미 흥사단에 대해 알기 이전부터 이미 사상적으로 도산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글을 발표하면서 도산에게서 받은 아호(雅號)인 ‘장백산인’을 사용한 것부터가 그러하거니와,<sup>24)</sup> 내용적으로도 이 글은 ‘무실역행’에 강조점을 두고 인재의 양성과 금전의 집적, 단합된 조직으로서 장차 ‘독립’에 필요한 ‘실력의 준비’를 강조한 도산의 흥사단 이념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sup>25)</sup> 이는 『선전 개조』의 집필 및 두 달여 간에 걸친 대대적인 연재가 애초에 국민회의의 특파로 상하이에 올 때부터 흥

---

조직의 개조를 주도한다. 그 결과 9월 11일 임시헌법 개정이 공포되어 1919년 11월 3일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일종의 연립 내각이 새로이 출범한다. 임경석(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제3장 3. ‘상해 임시정부와 한인사회당’, 102-108쪽.

- 23) “도산은 정부에서 물러 나오자 흥사단에 그의 밤 시간을 썼다. 내가 그에게 흥사단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첫째 가을인가 한다. 흥사단의 이론은 도산의 실천과 아울러서 깊이 내 마음을 끌었다.”(이광수(1947), 앞의 책, 264쪽). 한편 수양동우회 재판기록(昭和 15年 刑控 第17~20号)에 따르면, 이광수가 안창호에게서 흥사단의 입단을 권유받은 것은 이해 10월의 일이다.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7), 『독립운동사 자료집』 12, 1287쪽.
- 24) “長白山人이라 하는 뜻은 내가 상하이에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씨가 날더러 ‘長白’이라 하였다. 그 이유는 그때 그 분이 세 가지 조목을 들어주셨는데, 첫째 장백이라 함은 장백산 아래에 났으니 즉 조선에 났으니 장백이 可하고, 둘째 장백을 결백을 포함이니 可하고, 셋째 돈이 없으니 건달이란 뜻으로 可하다 함이었다.” 『雅號의 유래(2)』, 『삼천리』 제6호, 1930.5, 76쪽.
- 25) 1912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의 주도하에 결성된 흥사단의 약법은 이 단체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을 생명으로 삼고 자 하는 충의의 남녀를 단합시켜 우의를 돈독히 하여 德體知의 3育을 동맹수련해서 건전한 인격을 배양하고, 신성한 단체를 조직하여 우리 민족 전도의 대업의 기초를 준비하는 데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장 비밀문서(1997), 『도산안창호자료집(1)』, 국회도서관, 193쪽.

사단 원동지부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던 도산이 조직 구성을 위한 초석으로서 이광수를 통해 선전 작업을 펼친 결과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며,<sup>26)</sup> 아울러 이광수가 도산의 흥사단 이론에 깊이 공감했음을 말해준다.

독립은 한 나라를 유지·경영해갈 만한 ‘독립의 실력’을 갖추는 때 비로소 되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이광수의 오랜 생각이기도 했다. 일찍이 상하이에서 연해주, 북만주, 시베리아에 걸친 7개월여 간의 대륙방랑의 경험을 통해 그는 제 힘으로 제 나라를 경영해갈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설사 당장 독립을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바 있었고, 이러한 자각하에 『권업신문』 및 『정교보』와 같은 해외 한인 언론을 통해 「독립준비하시오」(1914.3), 「농촌계발의견」(1914.3), 「재외동포의 현상을 논하여 동포교육의 긴급함을」(1914.6) 등의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다.<sup>27)</sup> 2차 유학시절 초반 시 「어린 벗에게」(1916)에서 장편 『무정』(1917)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의 사유를 지배했던 ‘문명 조선의 구상’이 이러한 대륙방랑시절의 경험과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sup>28)</sup>

불과 6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하이에 망명한 이래 독립운동 해외 언론 선전책으로, 임시정부 조직책으로, 임시사료편찬 주임으로, 『독립신문』 창간 주체로서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그는 다시금 동일한 결

26) 『도산 안창호』에 따르면, 1919년 도산이 국민회의 특파로 원동으로 온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운동을 하러 온 것이었으며, 임시정부 내무총장 및 국무총리 대리직을 마치못해 수락하면서도 각지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을 상해로 모아 정식으로 임시정부가 조직되면 국무총리 대리직을 사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이광수(1947), 『도산 안창호』, 『이광수전집』 7, 143-145쪽). 이러한 도산의 견해는 그가 상하이로 오기 직전 1918년 10월 미국의 흥사단우에게 보낸 글 「전쟁 종결과 우리의 할 일」(주요한 편저(1999), 『안도산전서(증보판)』, 흥사단출판부, 609-611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7) 최주한(2012), 「중학시절과 오산시절 전후의 이광수」, 『춘원연구학보』 5, 294-299쪽.

28) 최주한(2011), 「제2차 유학시절의 이광수」, 『춘원연구학보』 4, 96-108쪽.

론에 도달했던 것 같다. 당장의 독립을 비판하는 해외 언론인의 냉정한 반응,<sup>29)</sup> 국내에서 전해오는 무장한 일본경찰의 폭압에 의한 다대한 인적·물적 피해 소식<sup>30)</sup>, 그리고 파리강화회의를 겨냥한 각지 민족 대표들의 독립청원운동의 실패<sup>31)</sup>는 그에게 당장의 독립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출범에서 정식 업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을 곁에서 지켜보고 또 직접 관여하면서,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된 중심기관의 중요성 및 이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인재와 금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허위와 의심, 공리공론,姑息을 위주로 생활하던 고래의 습관을 떨쳐

- 29) 이광수는 3·1운동 당시 약 삼 주일간 국내 독립운동의 실태를 취재하고 돌아온 『차이나 프레스』의 펍휘라는 외국인 기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말을 들은 것을 회고한 바 있다. “그만했으면 너희 민족이 일본 통치에 불복하고 독립을 원한다는 뜻과, 또 독립을 위하여서는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용기도 표시되었으니 더 동포들을 선동하여 희생을 내지 말라. 지난 수십년 간에 길러내인 지식 계급을 다 희생하면 다시 수십 년을 지나기 전에는 그만한 사람을 기를 수 없으니 앞으로 교육과 산업으로 독립의 실력을 길러라. 내가 보기에는 현재의 너희 힘으로는 일본은 내쫓고 독립할 힘이 없다고 본다.” 이광수(1947), 『나의 고백』, 앞의 책, 255쪽.
- 30) 3·1운동의 원인과 경과 및 결과를 망라한 『한일관계사료집』 제4편의 말미에는 국내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통계가 각 지방별로 제시되어 있다. <總計表>에 의하면, 참가 지방 211部, 참가 인원 1,681,648인, 사망 6,821인, 부상 45,163인, 수감 49,511인, 불탄 교회당 47개, 불탄 학교 2개, 불탄 민간인집 364개로 집계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2005), 위의 책, 229-236쪽.
- 31) 1918년 10월 미국의 대한민국민회는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강화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1919년 2월 상하이의 여운형 또한 강화회의에서 직접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신한청년당을 결성하여 김규식을 한국 대표로 파리에 파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민회는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앞세워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파리로 간 한인 대표들 또한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소극적 태도로 아예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조’ 조문 해석 당시, 전쟁 당사자국의 식민지 처리 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윌슨은 애초에 독립청원 식민지 제국 대표의 강화회의 입장 금지를 못박았다고 한다. 전상숙(200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7-28쪽.

버리고 ‘무실역행’으로써 인재의 양성과 금전의 집적, 단합된 조직으로서 장차 ‘독립’에 필요한 ‘실력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선전개조」의 주장은 독립은 운동이 아니라 ‘독립의 실력’을 갖추어 비로소 되찾을 수 있다는 도산의 오랜 신념이자 상하이 망명 이후 더욱 견고해진 이광수 자신의 신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해 10월 도산에게서 홍사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은 이광수가 이듬해 1월과 4월 두 차례의 입단 문답식을 거쳐 홍사단에 입단, 원동지부 임시반장에 임명되어 홍사단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 또한 이러한 사상적 공명 때문이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3. 「민족개조론」과 민족성 담론의 재구성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운동은 1년 남짓한 시일을 넘기면서 당장의 독립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여겼던 이광수의 예감을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그간 미주에서 보내오던 자금이 끊기고 본국의 민심 또한 가라앉아 모금 운동이 부진해지면서 임시정부는 순식간에 재정 궁핍 상태에 빠졌고, 애초에 연해주의 국민회의와의 갈등 속에서 개편된 임시정부 내부의 불화 또한 극에 달하여 이해 6월과 7월 이동휘와 도산이 잇달아 상하이를 떠나면서 정국은 일시 소강상태를 맞게 되는 까닭이다.<sup>32)</sup> 재정의 궁핍은 당장 『독립신문』의 운영난으로도 이어져 결국 1920년 5월 11일자(제75호)에 이르면 주3회에서 주2회로 발간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sup>33)</sup> 이광수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판하고 국내에서의 활동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32) 당시 임시정부 내부의 위기에 대해서는 주요한 편저(1999), 앞의 책, 263-275쪽 참조.

33) 최기영(2003), 「상해관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14-220쪽.

본국으로 곧 오라 하시고 연하여 네게 어찌 그러한 용기가 있으랴, 성의가 있으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감히 대답하리다. 내게 그만한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사업의 실패가 오고 동지들에 대한 실망이 올 때에 나는 분명히 일어나 본국으로 들어가서 몇 삼 년 징역을 치르고라도 본국에 있는 동포들 앞에 나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가면 징역을 치르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이광수9: 34).

인용문은 1920년 5월 6일 이광수가 허영숙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편지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허영숙은 이광수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고,<sup>34)</sup> 상하이에서의 독립운동의 앞날을 비관했던 이광수 또한 국내에서의 활동 여부를 고심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수감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상 그가 귀국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광수가 마침내 귀국을 결단한 것은 이듬해 2월, 불과 일주일의 사이에 두고 잇달아 상하이로 방문한 『동아일보』 전 정경부장 겸 학예부장을 지냈던 진학문 및 허영숙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2월 13일자 도산의 일기에는 “이광수 군의 소개로 전 『동아일보』 문예부장으로 있던 유일(留日) 학생 진학문 군을 면회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와 사회현상에 대하여 장시간 담론”(주요한 편저: 996)했다는 언급이 보인다. 일찍이 『동아일보』 창간을 주도하며 『동아일보』 정경부장 겸 학예부장까지 지냈던 진학문의 상하이 방문에 대해서는 임시정

34) 허영숙은 이해 1월 이광수에게 병원을 개업할 예정임을 알렸던 것 같다. “개업을 하든지 ○○을 ○든지 자유로 하십시오”(허영숙에게 보낸 1920년 1월 9일자 편지, 위의 책, 299쪽). “병원, 英惠病院은 개업되었다는, 왜 『매일신보』에 광고가 아니 나오? 나도 첫사업, 영도 첫사업, 깊이 축하하고 항상 성공을 빕니다. 아무쪼록 전 심력을 다하여 분투하십시오.”(3월 27일자 편지, 위의 책, 301쪽). 한편 1920년 5월 13일자 편지에는 “신문으로 개업하셨다는 것과 당신의 포부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라는 언급이 보인다. 같은 책, 306쪽.

부에 대한 정탐설도 제기되고 있지만,<sup>35)</sup>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 이광수에게 진학문과의 만남은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이후 변화된 국내 정세에 대한 긴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뒤이어 2월 16일자 도산의 일기에는 “이광수 군이 내방왈(來訪曰) 경성으로부터 허영숙이 내도(來到)한다 하며 출영(出迎)하러 왕(往)하노라 하다”(상동: 997)라는 언급이 보이는데, 당시 총독부 의료시찰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에 갔던 허영숙은 상하이에 들러 이광수를 만나고 그에게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좋으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sup>36)</sup>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8일자 일기에는 두 사람이 같이 본국으로 갈 뜻을 말한 데 대해 도산이 반대한 사실이 적혀 있다.<sup>37)</sup>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건

35) 진학문(1889-1974). 1907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듬해 게이오의숙 보통부에 입학했으나 중퇴한다. 1913년 다시 독일하여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입학하고, 1916년에는 도쿄외국어학교 러시아어학과에 입학했으나 역시 둘다 중퇴했다. 귀국 후 『경성일보』에 입사한 후 퇴사하고 곧이어 아베의 소개로 『오사카아사히신문』 경성지국에서 근무했다. 한편 총독부로부터 민간지 발행 허가를 얻어낸 그는 1920년 4월 김성수를 물주로 하여 『동아일보』 창간을 주도하며 『동아일보』 정경부장 겸 학예부장, 논설위원 등 핵심요직을 겸했다. 그러나 6개월만에 별다른 이유없이 『동아일보』를 퇴사하고 전공인 러시아문학을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러시아행을 결정한 그는 상하이를 들러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렀다가 귀국하고 만다. 이에 이 무렵 그의 상하이행은 임시정부 정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현(1997), 「일제 ‘문화정치’의 조력자 - 언론인 진학문」,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 새로 밝혀 다시 쓴 친일인물사』, 개마고원, 202-204쪽.

36) 당시 이광수에게 문화운동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권유한 사실에 대해서 허영숙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춘원은 마침내 ××로 갔지요. 그러나 춘원이 그 공기 나쁜 ××에서 그 몸으로 견디어 낼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내가 帝大에 있을 땐니다. 춘원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어요. **춘원은 그 약한 몸으로는 ××××같은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몸인데 다른 문화운동 같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으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하고 나는 나왔습니다.**” 허영숙 (1939.2), 「나의 자서전」, 『여성』, 27쪽.

37) 도산은 1921년 2월 18일자 일기에 “이광수 허영숙 군을 訪하다. 2인이 같이 본국으로 갈 뜻을 말하는지라, 余曰 今에 압록강을 渡하는 것은 적에게 降書를 提納함이니 절대 不可오, 君等 兩個人 前程에 大禍를 作하는 것이라. 속단적으로 행지 말고

대, 이미 이전부터 국내에서의 활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이광수는 진학문과 허영숙을 통해 국내에서의 활동 가능성을 타진하고 귀국을 결단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도산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광수는 도산 모르게 귀국할 결심을 하고,<sup>38)</sup> 먼저 허영숙을 돌려보낸 다음 뒤이어 단신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

이광수의 귀국에 대해서는 당시부터도 독립운동의 배반이라든가 변절이라는 비난이 뒤따랐고, 이광수 또한 이러한 비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을 둘러싼 세간의 의혹과 비난은 국내에서의 자신의 본격적인 활동과 더불어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실제로 발표는 1년 뒤에 했으나 귀국 직후에 쓴 「감사와 사죄」(『백조』, 1922.5), 마찬가지로 이해 8월 금강산기행에 나선 길에 초고를 쓴 것으로 보이는 「금강산유기」(『신생활』, 1922.3-8)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포부로 한껏 부풀어 있는 그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귀국을 전후한 무렵의 그는 상하이 임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얻은 민족

---

냉정한 태도로 양심의 지배를 받아 행하라 하다”고 적고 있다. 주요한 편저(1999), 『일기』, 앞의 책, 999쪽.

- 38) 이광수의 귀국이 도산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1920년 12월 상하이에서 흥사단 국내지부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회합이 있었다는 총독부 경무국의 증인신문 자료(조선총독부 경무국 소장비밀문서(1997), 『동우회 관계자 검거에 관한 건』, 『도산안창호자료집(1)』, 국회도서관, 224쪽) 및 도산이 이광수에게 귀국을 권유했으며 이광수의 귀국 당시 친히 전송까지 해주었다는 김기승의 「상해시절의 도산」(『사상계』, 1963.3), 「망명가들의 귀국 이면 폭로」(『제1선』, 1932.9) 두 편의 회고 기록이 언급되고 있다(박은경(2002),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서강대 사학과 석사논문, 29-30쪽). 그러나 전자는 동우회 최종심 재판기록에서 조작된 공술로 판명된 바 있으며(국사편찬위원회(1969), 『한국독립운동사』 5, 410쪽), 후자는 이광수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여제와 주요한의 회고 기록과 어긋나는 까닭에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김여제는 당시 귀국을 위해 잠적한 이광수의 정황에 대해서 함께 살던 박현환도 몰랐다고 회고한 바 있으며(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299쪽), 주요한 또한 이광수의 귀국 이후 도산이 공개석상에서 그를 성토하는 연설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주요한 편저(1999), 앞의 책, 383쪽.

개조의 방침과 더불어 도산의 흥사단 이념에서 영감을 얻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갖추고 있었고, 여기에 총독부가 표방하는 문화정치가 국내에서의 활동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을 것이다.

귀국 직후 이광수가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를 통해 사이토 총독에게 올린 건의서 「재외 조선인에 대한 긴급책으로서 다음의 두 건을 건의한다」(在外朝鮮人に対する緊急策として左の二件を建議する, 1921.4)는 이 무렵 총독부의 문화정치에 대한 그의 전략적 접근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39)</sup> 이 건의서는 그간 내용의 일부만 알려져 총독부에 대한 타산적인 처세술 혹은 귀순용 각서쯤으로 간주되어 왔지만,<sup>40)</sup>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등단하기 직전 일본 민권계열 잡지 『홍수이후』(洪水以後)에 투고한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朝鮮人教育に對する要求, 1916.3)와 『매일신보』 사장 아베에게 올린 건의서 「대구에서」(1916.9)와 동일하게 총독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민족의 요구를 관철하는 글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1)</sup>

39) 이광수(1921), 「재외 조선인에 대한 긴급책」, 『齋藤實文書 書簡』, 분류번호, 2166,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이 건의서는 아베의 서간과 따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서가 건네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다만 관련 자료 및 이광수의 회고에 따르면, 이해 4월경 이광수는 倭城臺 官舎에서 사이토 총독과 만난 일이 있다(국사편찬위원회(1969), 『한국독립운동사 5』, 앞의 책, 443쪽. 이광수, 「부부츠웅의 추억」(1939), 김원모·이경훈 편역(1997),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249쪽). 이로 보아 이광수의 건의서가 사이토에게 건네진 것은 적어도 그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귀중한 자료를 국회도서관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해주신 하타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이토의 문서는 인터넷상에서 다음 주소로 들어가 인명 가운데 ‘츠’ 항목을 클릭하면 방대한 규모의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http://nnavi.ndl.go.jp/kensei/entry/kensei-kyuzosha.php>

40) 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735-737쪽. 홍기돈(2013), 「『민족개조론』의 자치제 기획과 『허생전』」, 『제7회 춘원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63-64쪽.

41)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와 「대구에서」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는 최주한(2008),

『재외 조선인에 대한 긴급책』에서 이광수가 건의하고 있는 것은 ‘방랑 조선청년 구제 선도의 건’과 ‘재외 조선인 교육 선도의 건’ 두 가지이다. 전자는 1919년 독립운동 발발 이래 해외로 나와 방랑하는 지식 청년이 2천 이상에 달하는데 이들은 의식(衣食)이 곤궁한데다 사상 또한 과격화되고 있어 일본의 국방 및 사회의 안녕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일본의 통치권 밖에 방치되어 있는 연해주 및 만주 지방의 2백만 조선인 또한 이들 지식 청년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건의 내용은 당시 독립운동의 여파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운동의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요소를 이용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입장에서 보면 솔깃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sup>42)</sup> 더구나 이광수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내놓은 것은 1) 길림성 또는 봉천성 지역에 적당한 토지를 구매하고 이곳에 농촌과 학교를 경영케 하여 지식 청년들에게 의식(衣食)을 주고 교육을 주며 건설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줄 것, 2) 학교와 강습소를 설립하고 출판물을 발행하여 해외 조선인의 교육과 산업에 힘쓸 것 등으로, 3·1운동 이후 민심을 안정시키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교화·사회교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총독부의 문화정치 방침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했다.<sup>43)</sup> 그래서 아베를 통해 이 건의서를 접한 사이토는 곧 이광수를 왜성대 관사로 불러 직접 대면하고 그의 견해를 상찬하며 비용에 쓰도록 국유 미간지를 주겠다는 약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0, 424-431쪽 참조.

42)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문화운동을 역이용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제어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385-386쪽 참조.

43) 1920년대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치’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이지원(2004),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논문, pp. 126-133.

속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sup>44)</sup>

그러나 이광수 편에서 보자면, 교육과 산업은 2차 유학시절 이래 그가 줄곧 강조해왔던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데 긴요한 두 중심축이자 신민회와 청년학우회에 이어 흥사단에 이르기까지 인재의 양성과 금전의 집적, 그리고 단결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르고자 했던 도산의 핵심 사업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토록 명민한 이광수가 사이토의 문화정치라는 게 3·1운동 이래 들끓는 민심을 체제 내로 흡수하고자 하는 회유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보면, 『재외 조선인에 대한 긴급책』은 3·1운동 이래 민심의 안정과 치안의 유지라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던 총독부의 최대 현안을 건드리면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문화운동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씌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귀국을 고려하면서 이광수가 국내에서 전개하고자 한 활동이 민족개조운동이었다는 사실은 앞서도 언급했거니와, 그에게 문화운동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민족개조운동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총독부의 주시하에 합법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르긴 했지만, 이광수는 그러한 제약이 갖는 한계보다 가능성에 주목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민족개조운동의 대략을 밝힌 『중추계급과 사회』(1921.7)와 민족개조운동의 당위성과 방법을 소상히 언급한 『소년에게』(1921.11-1922.3)를 잇달아 집필·발표한 데 뒤이어, 다시금

44) 수양동우회의 재판기록에는 이해 4월경 이광수가 왜성대 관사에서 총독과 대면했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총독이 문기를 조선민족의 포부로서 하였다. 총독은 일찍이 피고인의 사상을 주지하였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답하기를 저 민족개조의 이론으로서 하고, 또 이 실행의 방법으로서 먼저 청년수양운동과 대중교회운동을 일으킬 뜻을 述하니 총독이 크게 이를 상찬하고, 심히 좋은 일이다. 비용에 쓰기 위하여 국유 미간지를 주겠다고 約하였다. 생각하니 사이토 총독은 조선의 통치에는 이광수의 주장하는 수양운동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던 때문이다. **저 만세 소요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의 침입이 점차로 성하려고 하는 당시의 대책으로서도 또한 好個事라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 (1969), 『독립운동사 5』, 443쪽.

방대한 분량의 체계적인 논문 체제를 갖춘 『민족개조론』(1921.11.11)의 집필에 뛰어든 것은 그가 민족개조운동에 걸었던 기대의 무게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실제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1920년대 초반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휩쓴 세계개조론의 흐름에 호응하여 앞 다투어 제출되었던 문화운동론자들의 다양한 민족개조론 가운데서도 단연 독보적인 텍스트이다. 논문의 압도적인 분량은 물론이고, 민족개조운동의 전사(前史)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에서부터 민족개조운동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용한 르봉의 민족심리학 이론, 그리고 도산의 흥사단에서 영감을 얻은 민족개조운동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논의 전개 면에서도 애써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임정시절 임시사료편찬회의 주임으로 활동하면서 갑신정변에서 한일합병에 이르는 한국 근대사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졌던 이광수가 민족개조운동의 전사에 밝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고,<sup>45)</sup> 도산의 흥사단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라면 『민족개조론』의 ‘변언’(辯言)에서부터 민족개조의 사상과 계획이 도산에게서 나온 것임을 밝혀두었으니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sup>46)</sup> 다만 민족개조운동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르봉의 민족심리학 이론을 차용하고 있는 본론은 조선인 민족성론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대응하는 주체적인 민족성론의 재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할 만하다.

그간 민족과 반민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문화적 논의틀로

45) 『한일관계사료집』의 제1부는 고대에서 한일합병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관계사를 다룬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갑신정변에서 한일합병에 이르는 시기의 기술은 총 47개의 항목에 걸쳐 사건 별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일관계사료집』(1919), 앞의 책, 27-44쪽.

46) 『민족개조론』과 도산 사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40-45쪽 참조.

인해 간과되어 왔지만, 1920년대 초반은 총독부가 3·1운동 이래 작성된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순치하기 위해 조선인 민족성 담론의 선편을 쥐고 자 발빠르게 움직이던 시기이기도 했다. 다카하시 도루가 1917년에 쓴 논문 「조선인」을 보완하여 총독부에서 재간행한 것은 1920년 12월의 일이다. 또 이 글은 1927년 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朝鮮人の思想と性格)에도 다시 실리고 있는데, 이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론이 그만큼 총독부의 정책상으로도 중요하게 취급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르봉의 민족심리학 이론을 차용한 방식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국면이 발견된다.

이광수는 한편으로 민족의 흥망성쇠에 민족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르봉의 이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의 민족심리학에 내재한 인종주의적 차별의 논리에 관해서는 과감히 민족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전유해 버린다. “일찍 이민족으로서 완전히 동화하여 동일한 성격의 민족을 성(成)하였다든 전례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면, 각 민족에게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일개 또는 수개의 근본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합니다”(이광수10: 128)와 같은 대목이 그 단적인 예인데, 이러한 언급은 조선인 민족성 개조의 목표를 일본인으로서의 동화에 두었던 당대 동화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힌다. 그러가 하면 민족의 근본적 성격은 불가변적이라 하여 인종적 개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던 르봉의 이론을 뒤집어 아무리 열등한 민족이라도 개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인의예용’(仁義禮勇)의 미덕을 근본 성격으로 갖고 있는 조선 민족의 경우는 더더욱 개조의 앞날이 밝다고 하여 르봉의 인종주의에 내재한 위계적 사고방식을 간단히 넘어서기도 하는데,<sup>47)</sup> 이 역시 ‘사상의 고

47)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르봉의 인종주의적 민족심리학을 주체적으로 전유한 방식에 관해서는 최주한(2011), 「민족개조론과 상애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 302-308쪽. 한편 이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논의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르봉의 학설을 자의적으로 차용했을 뿐 르봉의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찾아볼

착'과 '사상의 종속'을 조선인의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이라 하여 조선인은 독창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일본인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던 다카하시의 조선인론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광수는 르봉의 인종주의적 민족심리학 이론으로부터 역으로 조선 민족의 독자성 및 내적 동력에 의한 민족 개조의 가능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주체적인 민족성 담론을 재구성해내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총독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선인 민족성론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비판적으로 대응한 전략적인 텍스트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 동학 이념의 재발견, 『허생전』의 새나라 '남조선' 공동체를 창안하기까지

『민족개조론』 이후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은 당대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의 흐름에 호응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 초반 국내 사상계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를 휩쓸었던 사회진화론을 대신하여 정의와 인도, 자유와 평등 이념에 입각한 인본주의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과거는 우열과 빈부, 지우(智慧), 강약의 차별이 존재하여 모두가 불공평한 세계였으나, 금일은 바야흐로 정의와 인도,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강약이 공존하고 병건(病健)이 상보(相補)하는 세계로 개조되는 도정에 있다는 것이 사상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이다.<sup>48)</sup> 이러한 흐름은 '보편주의에의 개안(開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타노 세츠코(2011),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귀스타브 르봉의 「민족진화의 심리학적 법칙」에 대하여, 『일본유학생작가연구』, 소명출판, 167-168쪽.

48) 『개벽』 창간호에 실린 사설 『세계를 알라』(1920.6)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 단적

眼)과 더불어 ‘인류·민족’이라는 새로운 지형 속에서 민족의 위상에 대해 사고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었는데,<sup>49)</sup> 당대 담론에 ‘인류상대주의’라든가 ‘범인간적 민족주의’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sup>50)</sup> 당대 민족주의와 보편주의의 만남을 매개했던 이러한 인본주의적 지향성은 귀국 후 이광수의 주요 발표 지면이기도 했던 천도교계 잡지 『개벽』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바, 이광수의 민족개조의 기획이 인본주의에 부응하는 윤리적 민족 공동체의 창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잡지 『개벽』의 내적 동력에 힘입은 바 크다.

잡지 『개벽』은 동학의 ‘후천개벽’ 이념에 입각한 신문화의 창달을 목표로 천도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1920.6)한 종합잡지로, 종합지에 걸맞은 개방성을 가지고 당대 문화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동학 이념의 근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매체였다.<sup>51)</sup> 특히 후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벽』은 창간호에서부터 「인내천연구」(1920.6-1921.3)를 비롯하여 「인내천주의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 — 십대 위인 소개의 기칠(其七)」(1922.2), 「조선동학사상의 정체」(1922.3) 등 동학의 초대 교주 최제우의 사상을 근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소개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1923년 10월 28일 최제우의 탄생 백주년 기념일을 맞아서는 최

---

인 예이다. “우리의 과거는 이성의 訴求로는 심히 不思議의 중에 있어 왔도다. 優對劣者行爲, 富對貧者行爲, 智對愚者行爲, 내지 強對弱者行爲, 물질대정신행위, 모두가 불공평이었고 모두가 不理想이었다. [중략] 세계의 금일은 [중략] 개조하는 도정에 있으며 步一步 향상진보하는 중에 있나니 우리는 이것을 보고 黎明이라 하며, 瑞光이라 하며, 開闢이라 하도다. 이를 추상적으로 말하면 정의 인도의 발현이요, 평등 자유의 목표라 하겠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病弱 共存主義, 病健 相補主義라 하리로다.” 사설 「세계를 알라」, 『개벽』, 1920.6, 6-7쪽.

49) 권 보드래(2005),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315쪽.

50) 이돈화(1922.7), 「인류상대주의와 조선인」, 『개벽』. 논설 「범인간적 민족주의」, 『개벽』, 1923.1.

51) 최수일(2008), 『『개벽』 연구』, 소명출판, 361-414쪽.

제우의 후천개벽 이념을 세계개조사상의 선구로서 재조명한 기획 논설 「새삼스럽게 음미되는 조선의 최수운주의」(1923.10)를 신기도 했다. 이 무렵 이광수는 『개벽』의 지면에 ‘장백(長白)’이라는 필명으로 2회에 걸쳐 단편 「거룩한 이의 죽음」(1923.3-4)을 연재했는데, 전후 맥락으로 보아 이 단편 또한 이러한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집필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단편 「거룩한 이의 죽음」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계개조의 앞날을 내다본 예언자로서의 최제우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간호에서부터 연구와 기사, 논설 등 다각도로 동학 이념의 근대화를 꾀한 『개벽』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김윤식은 이 단편이 공들여 그리고 있는 최제우의 순교 장면에 주목하여 사라져가는 동학 이념의 무력함과 그에 대한 서글픔을 읽어 내고 있지만,<sup>52)</sup>사실 이 순교 장면에서조차 두드러지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이 도가 세상에 난 것은 하늘이 명하신 바요, 또 내가 이 몸을 도를 위하여 죽여 덕을 후천 오만년에 퍼게 하는 것도 하늘이 명하신 바”(이광수8: 128)임을 당당히 주장했던 최제우의 확신어린 위엄이다. 이광수는 최제우의 순교에서 동학의 쇠퇴를 본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동학의 도가 후천 오만 년의 세상에 펼쳐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던 당당한 선구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광수에게 선천의 세계가 ‘힘과 법의 세계’라면, 후천의 세계는 ‘도와 사랑의 세계’였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빈부도 귀천도 강약도 없고 오직 평등과 서로 섬김이 있을 뿐”인 세계, 그래서 그것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구경의 경계”(이광수7: 226)로 간주되기도 했다. 비록 후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상적 경계는 「거룩한 이의 죽음」에 한 달 앞서 발표된 논설 「쟁투(爭鬪)의 세

52) 김윤식(1999), 앞의 책, 509쪽.

계에서 부조(扶助)의 세계에」(『개벽』, 1923.2)에서도 “인류를 쟁투의 고(苦)에서 구제할 것은 오직 사랑의 원리”이며, 이 원리아말로 “인류의 가장 낡고도 새로운 이상”<sup>53)</sup>이라는 한 마디로 명료한 표현을 얻은 바 있다. 장편 『허생전』은 이러한 후천개벽의 관점에서 조선 민족의 오랜 민중 신앙의 하나였던 남조선사상을 재해석해낸 작품으로, 당대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의 흐름에 부응하는 윤리적 민족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광수는 장편 『허생전』(『동아일보』, 1923.12-1924.3)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허생은 우리 민족의 성격의 어떤 방면과 전통적·민족적 이상의 어떤 방면을 대표하는 점으로 그는 어디까지든지 실재적 인물”(이광수10: 505)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여기서 허생이 대표하는 전통적·민족적 이상이란 조선 민중의 오랜 구원 신앙의 하나였던 남조선사상과 관련이 있는데,<sup>54)</sup> 이는 변산의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먹고 살기 어려운 고국을 떠나면서 새로이 향하는 새나라를 ‘남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찍이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1946)에서 “대저 남조선이란 것은 본래 조선민족의 현실고에 대한 정신적 반발력으로부터 만들어낸 하나의 이상사회 표상”(최남선: 218)이라고 언급한 바 있거니와, 고국을 떠나 새나라로 향하면서 뱃사람들이 부른 뱃노래 - “이놈의 세상 다 버리고/ 남조선으로 어그여차” “수로 만리 남조선에/ 사시장춘 꽃 핀다네”(이광수1: 356) - 는 ‘남조선’의 이러한 이상사회적 지향성을 잘 보여준다.

53) 무기명(1923.2), 「爭鬪의 세계로부터 扶助의 세계에」, 『개벽』, 20쪽. 이 글은 나중에 『조선의 현재와 장래』(홍문당, 1923)라는 책에 「상쟁의 세계에서 상애의 세계에」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된다.

54) 『허생전』과 남조선사상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와다 토모미(2006), 『이광수 소설과 증산교의 관련 양상』, 『한국현대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및 최주한(2011), 『민족개조론과 상애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남조선사상은 조선 중엽 이후 일반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진 『정감록』에서 기원한다. 진인이 세상을 바꿀 구세주로 혼탁한 세상에 출현한다는 모티프를 담고 있는 『정감록』은 조선 중기 임진·병자 양대란을 겪는 가운데 민간신앙의 기틀을 형성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학을 비롯하여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속출한 민족종교의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sup>55)</sup> 그러나 당대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신종교운동을 표방했던 천도교와 달리 『정감록』 및 『정감록』에 기반하여 세를 확장하고 있던 보천교(흡치교, 태을교) 등의 신흥종교는 미신적이며 흑세무민의 성격을 띠는 이유로 세간에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sup>56)</sup> 이는 이광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광수는 일찍이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인의 인생관」(『개벽』, 1921.8)에서 조선 민중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책으로 『정감록』을 꼽으면서, 그것이 “개인이나 민족의 성쇠흥체는 오직 팔자와 운수에 달린 것”이라는 ‘숙명론적 인생관’을 부추긴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sup>57)</sup> ‘진인종해도중출래’(眞人從海島中出來)와 같은 예언에 매달리는 것은 의뢰심과 요행심만 키울 뿐, 정작 실력과 정직한 노력을 경시하여 민족을 쇠퇴의 나락으로 이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연장선상에서 「쟁투의 세계에서 부조의 세계에」(1923.2)에서는 “그네는 남조선과 정도령에 구제의 빛을 찾았고 그네는 평화회

55) 김철수(2010), 「19세기 민족종교의 형성과 ‘남조선 사상」, 『동양사회사상』 22, 2010, 28-41쪽. 양태진 번역·주해(2013), 『민족종교의 모태 정감록』, 예나루, 26-37쪽.

56) 『허생전』 연재를 전후하여 『개벽』에 실린 비판적인 기사만 해도 「흑세무민의 정감록 발행에 대하여」(1923.7), 「암영 중에 묻혀 있는 보천교의 진상」(1923.8), 「격변우 격변하는 최근의 조선인심」(1923. 7), 「계통산야」(1924.4) 등이 있다. 한 기사에 의하면, 開祖 강증산을 이어 敎統을 계승한 차경석의 보천교가 흡치교, 태을교라는 이름에서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것은 1922년 1월 경성에 眞正院을 개설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였다고 한다. 猪巖, 「암영 중에 묻혀 있는 보천교의 진상」, 『개벽』, 1923.8, 32쪽.

57) 魯巖(1921.8),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인의 인생관」, 『이광수전집』 10, 111-112쪽.

의에 구제의 빛을 찾았고 국제연맹에 구제의 빛을 찾았다. 그러나 언지 못하고 지금은 아무 희망도 없이 땅에 엎어져 울 뿐”<sup>58)</sup>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광수가 장편 『허생전』을 집필하면서 『정감록』의 예언에 내재한 남조선사상에 새삼 주목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였을까. 허생이 변산의 도적들과 함께 세우고자 한 새나라 ‘남조선’ 공동체의 이상은 이를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어 준다.

허생이 새나라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적들에게 새나라의 예법을 일러준 일이다. 이 땅에서는 남을 부러먹거나 부림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내것 네것을 가려서도 안 되며, 사람을 대하여 성내고 싸우려 해서도 안 되고, 대왕과 소인의 구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부정적 규정이 보여주듯, 그 예법은 하나같이 빈부, 귀천, 강약에 근거하는 옛나라 곧 선천 세계의 법을 뒤집은 윤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땀을 흘려 몸소 일하고, 내것 네것을 가리지 않으므로 시기하거나 서로 다툰 일이 없으며, 다스리거나 다스림받지 않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허생의 새나라는 ‘빈부도 귀천도 강약도 없고 오직 평등과 서로 섬김이 있을 뿐’인 곧 당대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에 흐름에 호응하는 동학의 후천 세계의 이상과 맞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새나라가 어디까지나 덕망 있는 지도자와 더불어 새로운 도덕으로 개조된 공동체의 몫이라는 점은 “무실과 역행과 사회봉사심을 개조하는 신민족성의 기초”(이광수10: 142)로 삼을 것을 주장했던 「민족개조론」의 논지와 그대로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허생전』이 조곰보의 섬에서 벌어진 반면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인데, 새나라와 마찬가지로 천연의 환경을 갖추고 있되 덕망 있는 지도자가 없고 새로운 도덕으로 개조된 공동체도 없었던 조곰보의 섬은

58) 무기명(1923.2), 「쟁투의 세계에서 부조의 세계에」, 『개벽』, 16쪽.

빈부, 귀천, 강약의 차별로 인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옛나라의 면모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까닭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장편 『허생전』은 당대 세계개조론에 호응하는 동학의 후천개벽의 관점에서 남조선사상이 갖는 이상사회의 표상에 주목하는 한편, 조선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는 ‘남조선’은 그저 운수를 기다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망 있는 지도자의 경륜과 더불어 새로운 도덕으로 개조된 공동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광수는 조선 민중의 오랜 구원 신앙의 하나였던 남조선사상에서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에 호응하는 윤리적 민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았고, 여기에 다시금 도산의 흥사단 이념을 접속함으로써 덕망 있는 지도자 아래 새로운 도덕으로 깨어 자진자립하는 공동체상을 창안해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윤리적 민족 공동체의 지위는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을 조선인의 근본 특성으로 간주하여 민족개조의 내적 동력을 무시하고 일본에 의한 동화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 민족성론을 의미심장하게 대체한다는 점이다. 다카하시의 조선인론에 대응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는 허생이라는 인물의 성격화가 『민족개조론』에서 언급된 바 있는 조선 민족의 ‘근본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족개조론』에서 이광수는 조선 민족의 ‘근본 성격’으로 인의예용(仁義禮勇), 곧 관대와 박애, 예의, 자존, 무용(武勇), 쾌활 등을 꼽았다. 타인에게 관대하고, 유쾌하게 놀기 좋아하며, 예의를 중시하면서도 남의 하대를 받기 싫어하고, 평화를 애호하되 불의를 보면 용기를 발하는 성격, 이광수는 이를 두고 “우리 민족의 타고난 천품이라 어디까지든지 발휘하여야 할”(이광수10: 131) 미덕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광수 자신 『작가의 말』에서 허생이 “우리 민족의 성격의 어떤 방면”(이광수10: 505)을 대표한다고 힘주어 언급했거니와, 이광수가 『허생전』에서 그려낸 허생

은 이러한 조선 민족의 ‘근본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만하다. 가난한 양반이면서도 예의와 자존을 잃지 않았던 허생은 안으로는 널리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자신의 경륜을 쏟고, 밖으로도 상애(相愛)를 지향하는 도의적 대외관계를 지향한 인물로서 성격화되고 있는 까닭이다.<sup>59)</sup>

보아온 대로, 이광수의 『허생전』은 남조선사상으로 대변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과 문화적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덕망 있는 지도자 허생을 조선 민족의 근본 성격을 대변하는 상애(相愛) 지향적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다카하시의 조선인 민족성론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1915년 조선학회 활동에서부터 1924년 『허생전』의 ‘남조선’ 공동체를 창안하기까지 민족성 문제에 대한 이광수의 오랜 천착은 그 자체가 ‘사상의 고착’과 ‘사상의 종속’을 조선인의 근본 특성으로 간주하여 동화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다카하시의 조선인론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이광수는 조선 민족이 내적인 동력에 의한 자기 개조와 더불어 세계개조의 흐름에 부응하는 역사의 주체이자 추동자로서 부상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 5. 식민지 민족주의의 윤리적 가능성에 대하여

1919년 3월 남녀노소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거국적으로 일어난 조선의 독립운동은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이라는 총독부의 조선 통치 정책의 변동을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의 전환이 동화정책을 주요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통치 이념에

59) 허생의 성격화를 중심으로 한 「민족개조론」과 『허생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최주한, 「민족개조론과 상애의 윤리학」, 위의 논문, 321-329쪽 참조.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대 주요한 관변학자의 한 사람으로 총독부의 문화정치를 뒷받침했던 다카하시 도루의 3·1운동에 대한 평가와 그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또렷하게 드러난다. 다카하시는 절대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며 거국적으로 일어났던 조선의 3·1운동을 두고 미국 사상에 종속된 일부 청년들의 허황된 선전의 결과이며, 조선인 민족성의 근본적인 특성인 사대주의가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 발동된 결과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대주의는 조선인 민족성의 근본 특성을 근간으로 생겨나 자라난 사상의 문제인 이상 “장래 일본의 조선 통치에도 가장 큰 위협과 불안을 안겨줄 것”이며, “이것이 조선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일본인의 바른 사상으로써 교화하는 정책을 통치 백년의 대계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카하시 도루: 154)라고 일갈했다. 3·1운동에서 다카하시는 일찍이 조선인의 열 가지 근본 특성의 하나로 꼽은 ‘순응성’과는 거리가 먼 조선 민족의 ‘저항성’을 보았지만,<sup>60)</sup> 그 저항성을 다시금 사대주의의 산물로 환원해버림으로써 동화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통치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61)</sup>

그러나 다카하시가 3·1운동의 ‘저항성’을 사대주의의 산물로 평가한 것은 동화정책에 근간을 둔 문화정치의 통치 방침을 뒷받침하는 데는 유효했는지 몰라도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

60) 다카하시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 “특별히 조선인의 특성 가운데 순종성을 제외하기에 충분한 실증적인 사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카하시 도루, 위의 책, 154쪽.

61) 다카하시는 뒤이어 조선의 문화정치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도 문화정치를 “정치와 행정의 분위기와 방식이 문화적”이라는 의미와 “조선인의 정신적·물질적 생활이 결국 일본인과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일본인이 지닌 문화를 조선인에게 이입하여 조선의 인간과 사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두 번째 항목이야말로 “병합 이래 통치의 근본 방침”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카하시 도루(1923.5), 『조선의 문화정치와 사상문제』(『太陽』), 위의 책, 192-193쪽.

다. 다카하시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시피, 문화정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문화와 문명 그 자체의 권위는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그다지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sup>62)</sup> 다카하시가 애써 폄하한 것과는 정반대로, 거국적인 3·1운동을 뒷받침했던 민족적 ‘저항성’은 일본이 불과 2천 7백여 년의 역사 속에서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생활을 해온 데 비해 조선은 4천 3백여 년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독립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오랜 ‘민족적 긍지’와도 맞닿아 있었던 까닭이다.<sup>63)</sup>

이처럼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조선 민족 고유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총독부가 문화정치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던 동화주의와는 대척점에 놓인 것이었다. 이는 일찍이 유교가 조선인의 민족성에 미친 영향을 대대적으로 비판한 『신생활론』을 비롯하여 자기 세대를 선조(先祖)도 없고 부모도 없는 ‘신종족’으로 자처하며 과거의 조선을 전면 부정한 『자녀중심론』을 썼던 이광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2차 유학시절 유교 비판을 중심으로 한 이광수의 민족성 비판은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인 민족성론의 화살을 직시하면서도 동화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와는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귀국 후 민족성의 개조를 전면적으로 문제삼은 논문 『민족개조론』에서도 조선인 민족성에 대한 서구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민족성론의 재구성을 보여주었으며, 장편 『허생전』에 이르러서는 주인공 허생을 조선 민족의 근본 성격을 대변하는 상애(相愛) 지향적 인물로 형상화하는 한편 인본주의적 세계개조론에 호응하는 독자적이고도 보편 지향적인 윤리적 민족 공동체를 창안해냄으로써 다카하시의 조선인 민족성 담론을 의미심장하게 대체했다. 민족성 문제에 대한 이광수의 오랜 천착은 서구

62) 다카하시 도루, 위의 글, 194-195쪽.

63) 국사편찬위원회(2005), 『한일관계사료집』(1919), 제2편의 1, 2, 5장 참조.

및 일본의 오리엔탈화된 지식에 맞서 독자적이면서도 보편 지향적인 민족 공동체상을 구축해 가는 도정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이광수는 세계의 우악(劣惡)한 민족은 모두 우강(優強)한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사라져야 할 운명임을 주장했던 서구 및 일본의 인종주의적 민족심리학에 맞서 민족성은 민족 고유의 것으로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열악한 민족이라도 각 민족의 여건에 맞는 개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논설로써 주장하고, 또 작품으로써 보여주하고자 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시대의 민족주의가 역사 발전과 진보를 앞세운 전투적 보편주의의 형태로 민족적 차이와 특수성을 고착화했다면, 민족개조론으로 대변되는 이광수의 민족주의는 민족적 차이와 특수성을 횡단하는 보편 윤리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가 동학의 후천개벽 이념에 힘입어 조선의 남조선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창안해낸 윤리적 민족 공동체상, 곧 안으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평등한 공동체이자 밖으로도 도의적 대외관계를 지향하는 허생의 새나라 ‘남조선’ 공동체는 우열과 강약에 기반한 제국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는 식민지 민족주의의 윤리적 저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이광수전집』(1979), 우신사.

『朝鮮人概況』(1916) 第3編 第1章 ‘内地在住 朝鮮人の 情況’,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su\\_003\\_1915j\\_11\\_10\\_0230](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su_003_1915j_11_10_0230)

『학지광』, 『개벽』.

高橋亨(1917), 『朝鮮人』, 『日本社會學院年報』, 日本社會學院事務所.

다카하시 도루(1920),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구인모 역,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153-154쪽.

임사자료편찬회(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한일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7), 『독립운동사자료집』 12, 1287쪽.

국사편찬위원회(1969), 『한국독립운동사』 5, 410쪽.

조선총독부 경무국(1997), 『도산안창호자료집 1』, 국회도서관.

이광수a(1919), 『춘원의 광복론: 독립신문』, 김원모 편역(2009) 단국대학교출판부, 56쪽.

양태진 변역·주해(2013), 『민족종교의 모태 정감록』, 예나루, 26-37쪽.

이광수(1921), 『재외 조선인에 대한 긴급책』, 『齋藤實文書 書簡』, 분류번호, 2166,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주요한 편저(1999), 『안도산전서(증보판)』, 흥사단출판부, 609-611쪽.

최남선(1946), 『조선상식문답』, 기파랑, 2011, 218쪽.

### 2. 논저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379-399쪽.

구인모(2010), 『조선연구의 발산과 수렴의 교차점으로서 민족성 연구』, 『한국문학연구』 38.

- 권 보드래(2005),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류」,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315쪽.
- 金廣植(2011), 『高橋亨の『朝鮮の物語集』における朝鮮人論に關する研究』, 東京學藝大學大學院綜合學校教育研究科, 『學校教育學研究論集』 24, 19쪽.
- 김원모(2009),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출판부, 88-111쪽.
- 김윤식(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2』, 솔, 735-737쪽.
- 김철수(2010), 「19세기 민족종교의 형성과 ‘남조선 사상」, 『동양사회사상』 22, 28-41쪽.
- 김택호(2000), 「개화기의 국가주의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의 관계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13.
- 김현주a(2001), 「이광수의 문화적 파시즘」, 『문학 속의 파시즘』, 김철 신형기 외, 삼인, 104-107쪽.
- \_\_\_\_\_ b(2005),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역사와 현실』 No.57.
- 김형국(2001), 「1920년대 초 민족개조론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 박은경(2002),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서강대 사학과 석사논문, 29-30쪽.
-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294-298쪽.
- 송육(1969), 「민족개조론 - 정치적 배신의 도덕적 위장」, 『문학평전』, 일조각, 313쪽.
- 오영섭(2001), 「조선광문화 연구」, 『한국사학사학보』 3, 133쪽.
- 와다 토모미(2006), 「이광수 소설과 증산교의 관련 양상」, 『한국현대문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지원(2004),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논문, 126-133쪽.
- 임경석(2003),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제14장 ‘사회주의운동의 지각변동’, 546-563쪽.
- 임종국(1985),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261-262쪽.
- 전상숙(2009), 「파리강화회의와 약소민족의 독립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50, 27-28쪽.
- 정운현(1997), 「일제 ‘문화정치’의 조력자 - 언론인 진학문」, 『나는 황국신민이 로소이다 — 새로 밝혀 다시 쓴 친일인물사』, 개마고원, 202-204쪽.

- 최기영(2003), 『상해판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14-220쪽.
- 최수일(2008), 『『개벽』 연구』, 소명출판, 361-414쪽.
- 최주한(2004),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 - 1920년대 초반 『개벽』지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24, 310-313쪽.
- \_\_\_\_\_ (2008), 『제국의 근대와 식민지, 그리고 이광수 - 제2차 유학시절 이광수의 사상적 궤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40, 424-431쪽.
- \_\_\_\_\_ (2011), 『민족개조론과 상애의 윤리학』, 『서강인문논총』 30, 302-308쪽.
- \_\_\_\_\_ (2011), 『제2차 유학시절의 이광수』, 『춘원연구학보』 4, 96-108쪽.
- \_\_\_\_\_ (2012), 『중학시절과 오산시절 전후의 이광수』, 『춘원연구학보』 5, 294-299쪽.
- 최혜주(2005),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42, 473-478쪽.
- 하타노 세츠코(2011),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귀스타브 르봉의 『민족진화의 심리학적 법칙』에 대하여』, 『일본유학생작가연구』, 최주한 옮김, 소명출판, 167-168쪽.
- \_\_\_\_\_ (2011), 『이광수의 제2차 유학시절—『무정』 다시 읽기』(상),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 최주한 옮김, 소명출판, 83-84쪽.
-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0집.
- 홍기돈(2013), 『『민족개조론』의 자치제 기획과 『허생전』』, 『제7회 춘원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3, 63-64쪽.
- M.로빈슨(1990),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김민환 역, 나남, 107-124쪽.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6일

계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

## A Review on Lee Kwang-su's Project of Nation Reformation

Choi, Ju-han

The planning of Lee Kwang-su's nation reformation was a long-term project which took place under a wide range of conditions. The idea first emerged during his second period of study abroad when he worked at the Joseon Academy. The idea then took on shape when he worked at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was introduced to Dosan's Heongsadan ideal. After returning home, the idea was reestablished under the stimulus of the Chondogyo cultural movement. The idea was finally made into blue print through the novel "The story of hoesang". But existing research has only given attention to "The essay of nation reformation"(1922). Therefore, this article gives attention to the conditions Lee Kwang-su's project of nation reformation that were present from its inception to established form, to the prospects which he emphasized concerning nation reformation, and to his strategic writing. This article shows that Lee Kwang-su's long term attention for the nation problem wa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universal ethical-national community against the West and Japan's orientalized information of the Joeseon nation.

